

10만원대 부품 없어 멈춰선 '캐스퍼' 생산...정상화 물꼬

공급망 마비 중국산 부품 대신 캐나다서 부품 확보 성공 광주글로벌모터스, 특근 통해 샅다운 감산분 회복 예정

10만원대 부품 공급 마비로 생산라인 중단 사태를 겪었던 인기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SUV) '캐스퍼' 생산라인이 정상 가동의 물꼬를 댔다.

캐스퍼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위탁 생산하는 차종이다. 그간 중국에서 공급하던 '에어백 컨트롤 유닛(ACU)'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지난 18일 오후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샅다운 사태를 겪어야 했다.

이번 중국발 부품 공급 사태는 부품공장이 소재한 상하이 지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 달 넘게 봉쇄되면서 공급망이 마비된 것이

원인이다.

25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따르면, 현대차가 캐스퍼 생산라인 가동 중단 사태를 불러온 중국산 '에어백 컨트롤 유닛(ACU)' 대체 부품을 캐나다에서 확보하는데 성공해 이날부터 정상 가동에 돌입했다.

캐나다산 부품은 당초 일주일 생산 분량인 1300여개를 확보했지만 항공편 선적이 일부 지연돼 일단 600여개만 공급된다.

GGM은 부품 수급 상황에 맞춰 생산라인을 중단 없이 탄력적으로 가동하고, 부품이 충분히 확보되면 특근 등을 통해 감산된 생산량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캐스퍼 생산 중단 사태를 야기한 ACU는 반도체로 이뤄진 부품으로 가격은 10만703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차량 충격 시 에어백 전개까지 소요되는 약 0.1초의 짧은 시간에 에어백 작동을 결정 짓는다는 점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 부품으로 취급 받는다.

해당 부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데, 캐스퍼 ACU의 경우 타 차종에 쓰이는 부품과 호환이 안 된다. 부품 공급이 끊길 경우 10만원짜리 부품 때문에 1대당 2000만원 대인 캐스퍼 생산라인이 전면 멈춰서는 샅다운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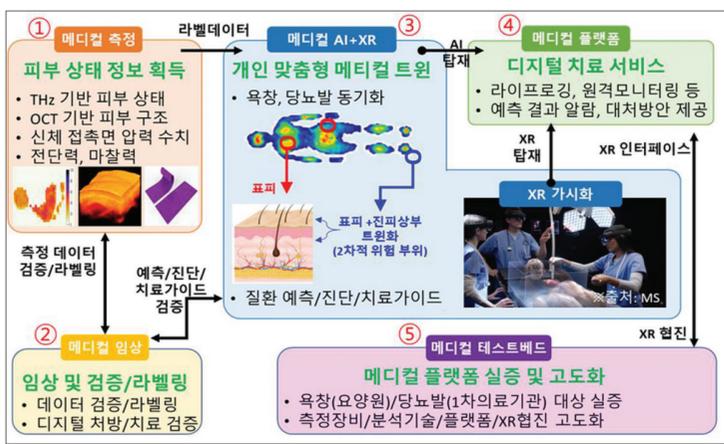
한편 GGM은 올해 캐스퍼 누적생산 5만대 달성을 목표로 전력투구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양산 이후 지난 4월까지 누적 생



산 2만대를 돌파했다. GGM은 4월부터는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현재의 22대 수준에서

25.7대까지 끌어올려 월 4500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노인 만성 피부 질환 디지털 치료제 서비스 개념도.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 메타버스 기술로 노인 만성피부질환 해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국가 공모 선정...국비 50억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에 광주시가 제안한 '노인 만성 피부질환 관리'를 위한 확장현실(XR) 트윈 기술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과제 선정으로 시는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

확장현실(XR) 트윈 기술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포함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해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 중심도시인 광주시는 메타버스, 확장현실, 디지털 트윈 등 미래 혁신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콘텐츠와 플랫폼 등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컨소시엄과 함께 노인 만성 피부질환 관리를 위한 확장현실 트윈 기술개발에 2025년까지 4년간 국비와 시비 등 5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비용이 큰 욕창과 당뇨발 예방을 위해 ▲피부 상태와 중증도를 예측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처방 기술 개발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맞춤형 메디컬 트윈 구축과 인공지능 활용 피부질환의 예측·진단·치료 가이드 모델 개발 ▲XR 기반 의료진 협진시스템 개발과 자가진단, 질병 예방을 위한 원격모니터링 앱(웹)을 개발하게 된다.

이슬비기자

전남도,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조성 앞장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홍보·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추진

전남도는 코로나19로 2년 이상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 전면 해제됨에 따라 도내 교통사고가 증가할 전남도는 4월에 이어 오는 7월까지 연이어 보행자 중심으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도민에게 적극 알리려 교통안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운전자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노인·장애인·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노인·장애인·어린이 시설의 인근 도로 등 주변까지 확대됐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했

고,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기사 손수레, 카트도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주행도 가능해졌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후회된 차량은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부과에 따라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서행운전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하다고 판단하면 이면도로 등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안전표지나 속

도지감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남도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시군별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펴고, 언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홍보할 방침이다.

이달 말부터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특별 합동점검에 들어가 보행자 안전대책과 신호체계 개선, 필요한 안전시설 확충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잦은 순천과 영광 지역부터 시작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정도로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은 보행자 사고 예방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도로 환경개선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전남 농촌관광 활기

농촌체험휴양마을·민박 예약률 40% ↑
'포스트 코로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코로나19로 발길이 뜸했던 도시 관광객들의 전남지역 농촌관광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민박에서 농촌여행을 바라는 도시민의 예약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특히 주말 단체 체험객 문의가 늘면서 농촌체험마을과 농어촌민박 예약률이 최소 10%에서 최대 40% 증가했다. 유치원과 초

등학교 등 학생체험 및 단체행사, 20명 이상의 단체 여행객의 예약이 늘고 있다.

전남지역 농촌관광객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 29만 4740명을 정점으로 2020년 16만 7369명, 2021년 15만 8796명까지 지속해서 줄었다. 올 들어 4월 현재까지 농촌관광객 수는 14만 572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숫자는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포스트 코로나를 겨냥해 변화한 여행 트렌드를 농촌관광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나홀로 여행객 및 소규모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한 힐링·치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규모 단체 농촌관광 체험객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현재 전남지역에선 농촌체험휴양마을 174개소, 농어촌민박 3151개소가 운영 중이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숙박·식당 등 시설을 활용해 마을을 찾는 도시민에게 체험·휴양프로그램을 제공,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광과 레저, 휴식과 치유, 교육과 복지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전남은 생태·문화·힐링 자원이 풍부해 한국을 대표할 농촌관광 여행지로 손색이 없으므로 많이 찾아와 즐기고, 농촌 활력에 보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